

성경해석학

제 4 강

의미에 대한 접근들

역자: 이창배 (Ph.D., UCLA)

후원: 이유선 (Daughter)



thirdmill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3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MILL

Founded in 1997, Thirdmill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mill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mill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성경해석학

제 4 강 의미에 대한 접근법들

목차

I. 서론(Introduction)	1
II. 객관적(Objective)	2
A. 배경(Background)	3
B. 영향(Influence)	5
III. 주관적(Subjective)	8
A. 배경(Background)	8
B. 영향(Influence)	10
IV. 대화적(Dialogical)	12
A. 배경(Background)	13
B. 영향(Influence)	15
C. 비교(Comparison)	17
1. 권위-대화 그리고 객관적(Authority-Dialog and Objective)	18
2. 권위-대화 그리고 주관적(Authority-Dialog and Subjective)	18
V. 결론(Conclusion)	20

성경해석학

(He Gave Us Scripture: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

제 4 강 의미에 대한 접근법들(Approaches to Meaning)

I. 서론(INTRODUCTION)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사람들이 어떤 성경 단락의 의미에 대해 서로 동의하지 않는 것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흔히 이런 대화들은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된다. 한 사람은 "글쎄, 당신의 해석은 단지 당신의 의견일 뿐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니요, 그건 내 의견만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러한 발언은 성경 해석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반영한다. 우리가 성경의 한 단락을 읽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결론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결론은 객관적 사실인가, 주관적 의견인가,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성경해석학** 강좌의 네 번째 강의이다. 이 강의의 제목은 "의미에 대한 접근법들"이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해석자들이 성경의 의미를 식별하고 묘사하는 몇 가지 주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은 단락의 의미에 대해 묻기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지식의 객체와 지식의 주체를 구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지식의 객체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 객체는 아이디어처럼 추상적일 수도 있고, 사람이나 장소처럼 구체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생물학자들은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객체를 연구한다. 그리고 음악가들은 음악이나 악기와 같은 객체를 연구한다. 이와 반대로, 지식의 주체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다. 생물학 분야에서는 생물학자 자신이 지식의 주체이다. 그리고 음악 분야에서는 음악가가 지식의 주체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연구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우리 연구의 객체는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대상인 성경이다.

이렇게 모든 종류의 인간 이해에는 지식의 객체와 주체가 포함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의 추구에 있어서 객체와 주체는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가?

인간 지식의 객체와 주체 대한 세 가지 주요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주 도움이 된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객관주의라고 부르는 접근법을 지향한다. 객관주의자들은 올바른 상황에서 공정하거나 객관적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둘째로, 어떤 사람들은 주관주의라고 불리는 접근법을 지향한다. 주관주의자들은 우리의 지식이 항상 개인적인 편견에 영향을 받으므로 공정한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대화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는다. 이 접근법은 객관적인 현실과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 또는 상호 작용을 강조한다.

놀랄 것도 없이, 이 세 가지 접근법은 모두 성경 해석에 사용되어 왔다. 이번 강의에서 성경의 의미를 고려할 때, 성경 단락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아니면 대화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각각의 접근법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의미에 대한 이 세 가지 주요 접근법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먼저, 우리는 객관적 접근법을 고찰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주관적 접근법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화적 접근법을 탐구할 것이다. 그럼 성경의 의미에 대한 객관적 접근법부터 시작해보자.

II. 객관적(OBJECTIVE)

우리 모두는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 그것을 뒷받침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물론, 성경을 해석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많은 성경 단락의 의미에 대한 의견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성경 단락이 의미한다고 믿는 것을 주장하고 거기서 그친다. 이러한 문제에 자주 부딪히면 매우 실망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성경 이해를 갈망하게 된다.

유럽에서는 17 세기와 18 세기 이래로 객관주의가 성경 해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본질적으로 학자들은 성경을 공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의 의미를 비교적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믿어 왔다. 대부분의 객관주의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개인적 편견과 관점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는 창세기 1 장 1 절을 알고 있다.

(창 1:1 개역개정)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의 기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뜻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객관주의자들이 창세기 1 장 1 절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 구절을 편견 없이 이해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해석을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명백한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성경의 의미에 대해 이러한 접근법을 따라왔는가? 그리고 성경 해석학에서 객관주의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법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이러한 접근법의 철학적, 문화적 배경을 다룰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러한 접근법이 성경 해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그럼 먼저 해석에 대한 객관적 접근법의 배경을 살펴보자.

A. 배경(BACKGROUND)

객관주의는 현대 철학의 흐름에서 가장 두드러진 흐름, 즉 우리가 과학적 합리주의라고 부르는 흐름과 동일시될 수 있다. 1596 년부터 1650 년까지 살았던 르네 데카르트는 이성을 진리의 최고 심판자로 내세웠기 때문에 종종 현대 합리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 전통, 믿음, 직관, 미신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사고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객관적인 현실을 숨긴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엄격한 논리적 사고에 의존하는 것이 인간을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로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적 합리주의는 또한 자연 과학의 발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1561년에서 1626년까지 살았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물리적 세계의 연구에 적용했기 때문에 종종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사실상, 베이컨은 질서 정연하고 실험에 의거한 조사—우리가 흔히 부르는 “과학적 방법”—가 인간의 주관성을 억제하여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을 확산시켰다.

과학적 합리주의는 17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이 관점이 채택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심지어 종교나 신학 같은 학문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물론 합리성과 과학이란 개념들은 수세기에 걸쳐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하지만 객관주의의 기본 가정, 곧 합리적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현대 객관주의는 구조주의로 알려진 광범위한 철학적 관점에 의해 극단으로 치달았다. 간단히 말해, 구조주의자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객관성을 사용하여 사회학, 예술, 언어, 문학 등을 포함하여 그들이 연구하는 모든 분야를 철저히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문학 해석의 객관성에 대한 그들의 열망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구조주의자들은 주관적인 요소를 도입한 모든 고려 사항을 배제했다. 저자의 의도, 원래 청중의 필요, 현대 독자의 의견은 합리적인 과학적 분석을 하기에는 너무 주관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구조주의자들은 엄격한 합리적 분석을 통해 자신들이 해석하는 본문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베른 포이스레스[Vern Poythress] 박사)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만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면을 만드셨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고, 우리의 직관을 만드셨고, 우리의 감정을 만드셨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면에 관여하고 계신다. 따라서 성경을 편협한 지성주의적 시각으로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편협한 감정이나 직관적 시각으로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반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죄가 우리의 마음과 직관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서로 바로잡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다.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에 기울어져 있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솔직히 이걸 내 마음에 적용해보니 내 직관에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가끔은 내가 지적인 아이디어를 얻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직관적인 의미가 나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의미에 대한 객관적 접근법의 철학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객관적 접근법이 성경 해석에 미친 영향에 주목해보자.

B. 영향(INFLUENCE)

합리적 과학적 객관주의는 성경 해석에 두 가지 기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비평주의 성경 연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둘째로, 그것은 복음주의 성경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비평주의 학자들은 성경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과학, 고고학, 역사 연구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조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타깝게도 비평주의 학자들은 종종 이러한 종류의 조사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성경의 많은 주장과 가르침을 거부하게 된다.

비평주의 학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이 절대적으로 참되고 권위가 있으며, 모든 과학적 발견은 궁극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 고고학, 역사로부터 성경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여 올바르게 사용되기만 하면, 이성과 과학적 방법은 성경의 의미를 찾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 분야에서 얻은 통찰들은 종종 과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정보와 관련된 성경의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들이 결코 성경의 주장과 가르침을 거부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필립 라이켄[Philip Ryken] 박사)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해석 방법을 갖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의 종류를 정말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 던지는 질문들과 우리가 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나는 성경을 공부하며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따르려고 하는 어떤 규칙적인 단계별 방법, 곧 공부하려는 모든 단락에 대하여 던질 질문들을 가져보라고 권면한다. 하지만 성경 해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한다고 해서 항상 성경 본문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한 가지 방법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느 특정 단락을 해석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에도 마음을 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캐리 빈잔트[Carey Vinzant] 박사)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엄격한 방법론을 사용할 때, 그것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장점이 된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아무렇게나 대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을 방지한다. ... 알다시피, 좋은 방법론적 토대는 우리가 속제를 하도록 유도하므로 근면과 집중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방법론적 엄격함은 때때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것은 환원적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이에 대한 예로 제시하기를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요한복음 13 장에 나오는 발을 씻어주는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배워온 귀납적 방법론으로 이 본문을 접근한다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13 장이 단순히 섬김에 대한 교훈이라는 확신만 가지고 그 말씀을 떠나기가 너무 쉽다.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와 성경 전체 안에서 이 단락을 더 깊이 살필수록, 나는 요한복음 13 장이 사실 바울이 빌립보서 2 장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극화한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다. 빌립보서 2 장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3 장과 빌립보서 2 장에는 이전의 영광, 자기 비움과 섬김, 그리고 나서 이전의 영광으로 돌아옴과 승귀라는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 이것은 펠리칸이 말하는 선재, 비하(kenosis, 비움), 승귀의 기독교론과 같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는 데 도움이 되는 본문의 단서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좀 미묘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방법론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방법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목표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있다. 그것이 항상 요점이다.

의미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법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성적 건전한 해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경 해석에 대한 이 접근법이 가치가 있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아무것도 그분의 시야에서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지식에 있어서 객관적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결코 완전히 객관적이고 완전히 편견 없는 사실 조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접근법의 이점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무엇이 수반되는지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의미에 대한 객관적 접근법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주관적 접근법으로 관심을 돌려보자.

III. 주관적(SUBJECTIVE)

주관주의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주관주의자들은 인간과 세계, 특히 신앙의 문제가 과학적 합리주의로 파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들의 의미에 대한 탐구는 전형적으로 직관이나 감정과 같은 개인적인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 장 34-35 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잘 알려진 가르침을 주셨다.

(요 13:34-35 개역개정)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마다 매우 다르다.

객관주의자는 성경을 죽 살펴보며 사랑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관주의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사랑을 정의하고 그 정의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다.

의미에 대한 주관적 접근법에 대한 논의도 객관적 접근법에 대한 논의와 비슷한 방식을 취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주관적 접근법의 철학적, 문화적 배경을 다룰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그것이 성경 해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그럼 먼저 해석에 대한 주관적 접근법의 배경을 살펴보자.

A. 배경(BACKGROUND)

어떤 점에 있어서 근대 주관주의는 17 세기와 18 세기 계몽 운동의 객관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주목을 받았다. 1711 년부터 1776 년까지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회의론자 데이비드 흄과 같은 철학자들은 이성과 과학적 연구가 우리를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으로 이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흄과 같은 철학자들은 우리의 감정, 욕망, 정신적 범주가 항상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한 객관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1724년부터 1804년까지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주관적 사고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칸트는 우리가 객관적 실체를 있는 그대로 알 수 없고, "사물 그 자체(Ding an sich, a thing itself)"를 결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세계를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만 인식하고, 그런 다음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는 이성적 범주나 개념을 통해 그 인식을 처리한다고 믿었다. 칸트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세계에 대한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항상 우리의 경험적 인식과 정신적 개념화를 모두 포함한다고 결론지었다.

훔과 칸트 이후, 19 세기에도 낭만주의와 같은 운동을 통해 의미에 대한 주관적인 접근법이 계속 발전했다. 낭만주의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표현적인 시, 드라마, 음악, 시각 예술 등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담론보다 훨씬 더 뛰어난 현실 이해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이성주의가 직관과 감정과 같은 중요한 인간의 특성을 평가 절하하기 때문에 비인간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들은 해석자들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인간 특성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미에 대한 주관적인 접근법은 20 세기 후반에 후구조주의(post-structuralism)로 알려진 운동으로 다시 이동했다. 프랑스의 이론가들인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cois Lyotard),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20 세기 구조주의의 객관성을 거부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객관주의에서 너무 멀리 나갔으므로 객관성에 대한 모든 희망을 거부했다. 그들은 지식에 대한 객관적인 주장들이 너무 제한적이고 주관적인 편견과 감정과 기존 신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많은 후구조주의자들은 19 세기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와 20 세기 실존주의자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니체와 실존주의자들은 지식에 대한 모든 주장들이 주로 한 개인이나 집단의 편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후구조주의자들 중 일부는 이러한 생각을 예술과 문학에까지 확장하여 예술적 해석조차도 사회적 지배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권력 놀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시대에 주관주의는 특히 예술과 문학의 해석에 널리 퍼져 있다. 주관적인 해석자들은 우리가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포함한 예술과 문학의 의미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주관주의자들은 예술과 문학의 객관적 의미를 말하기보다는 음악, 그림, 책 등이 다른 문화권, 다른 민족, 다른 경제 계층, 다른 성별 등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다양한 그룹이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위해 예술과 문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특히 관심이 많다.

지금까지 의미에 대한 주관적 접근법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것이 성경 해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B. 영향(INFLUENCE)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문화의 흐름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중 누구도 문화가 우리의 성경 해석학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해석학적 주관주의는 학문적 논의의 범위를 넘어 너무나 보편화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에 대한 주장들이 실제로 개인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과 성경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더 그렇다. 이런 이유로 우리 모두는 주관주의가 오늘날 성경 해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더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과학적 객관주의와 마찬가지로, 주관주의도 비평주의적 성경 연구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적 성경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관주의의 영향을 받은 비평주의적 성경 학자들은 종종 성경 본문에서 객관적인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학생들에게 성경의 본래 의미를 발견하도록 가르치는 대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성경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내도록 권장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을 해석할 때 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의 본문이 객관적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심이 없었고, 주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다고 믿는다. 비평주의적

주관주의 해석자들은 우리도 똑같이 성경의 객관적 의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의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비평주의적 성경 연구들과 대조적으로 복음주의적 성경 연구들은 대부분 극단적인 주관적 관점들을 피했다. 적어도 원칙에 있어서 대체로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의 의미는 해석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복음주의자들도 해석학에 대한 주관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들은 단락의 객관적인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주 "당신에게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물어본다. 그리고 설교자들과 성경 교사들은 본문의 역사적 배경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주 현대의 관심사를 성경 단락에 주입하며 읽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주관주의는 여전히 복음주의 성경 해석학에 귀중한 공헌을 해왔다. 주관주의는 우리의 문화적 배경, 개인적 배경, 기술, 능력, 약점과 한계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올바르게 지적했다. 그리고 주관주의는 성령께서 영감받은 인간 저자들의 주관적인 관점을 사용하시어 성경을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을 사용하시어 우리로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필립 라이켄[Philip Ryken] 박사)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개인적인 반응을 요구한다. 언제나 성경은 믿어야 할 약속, 따라야 할 경고, 순종해야 할 명령을 우리에게 준다. 따라서 정말로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의 요소가 항상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반응은 우리가 시작하는 지점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시작하는 지점이 되면, "이 단락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 혹은 "이 단락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반응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현대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의미를 얻기 전에 성경의 원래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경의 의미를 그 자체로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다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개인적인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

의미에 대한 주관적 접근법은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때 해로울 수 있다. 명백한 사실은 어떤 성경 해석들이 다른 해석들보다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 해석에 대한 주관적 접근법은 우리의 배경과 성격, 심지어 직관과 감정이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에 대한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을 인식하는 것은 그것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다루어 성경을 더욱 책임감 있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객관적인 접근법과 주관적인 접근법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대화적 접근법을 살펴보자.

IV. 대화적(DIALOGICAL)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떤 일에 대해 너무 강한 의견을 피력하며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자신의 의견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동조할 뿐이다. 그러나 어떤 때는 당면한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고집한다. 이런 좋은 대화에서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세심하게 경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대화가 지속됨에 따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런 종류의 대화나 환담은 성경을 포함한 모든 문학을 해석하는 모델이 되었다.

“대화적”이라는 말은 해석이 독자와 본문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대화나 토론을 포함한다는 아이디어를 가리킨다. 따라서 기본 아이디어는 본문에는 객관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객관적 의미는 독자와 본문 사이의 주관적인 상호 작용이나 대화를 통해 가장 잘 발견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편 119 편 18 절에서 이런 종류의 대화의 예를 볼 수 있다. 거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요청을 했다.

(시 119:18 개역개정)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정기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해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대화적인 관점을 표현했다. 첫째, 그는 율법에서 객관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이고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자신의 주관적 영향력을 제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찰력을 높여서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향상시켜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의 더 넓은 문맥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율법의 본문으로 돌아갔다. 그는 성경과의 대화를 유지하며 그 의미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의미에 대한 대화적 접근법에 대한 우리의 탐구도 객관적 접근법과 주관적 접근법을 살펴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대화 모델의 철학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대화 모델이 성경 해석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한편으로 객관적 접근법과 주관적 접근법을 비교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화적 접근법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그럼 먼저 대화적 접근법의 배경을 살펴보자.

A. 배경(BACKGROUND)

철학적 해석학의 분야에서, 해석의 대화적 성격은 1768 년부터 1834 년까지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요 신학자요 언어학자인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에 의해 강조되었다. 그는 해석자들이 본문이나 다른 복잡한 대상들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불리는 잘 알려진 해석 모델을 제공했다. 순환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 먼저 우리의 머리 속에서 그것을 다룰 때 시작된다. 그런 다음 우리는 더 많은 대상을 만나고 더 많은

이해를 처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돌아온다. 술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 순환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해석학적 나선형, 즉 점진적으로 더 큰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해석자들과 그들의 연구 대상 사이의 순환적 움직임으로 묘사되어 왔다.

대화 모델은 과학에서도 등장했다. 1922년부터 1996년까지 살았던 토머스 쿤과 같은 20세기 과학 철학자들은 과학적 지식이 객관적 실체와 우리가 과학적 연구에 적용하는 이해의 패러다임 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패러다임의 기본 개념은 우리의 모든 신념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념들은 복잡한 구조로 서로 맞물려 있으며, 각각은 서로를 강화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신념이 우리의 패러다임에 도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패러다임의 구조를 위협하는 새로운 신념에는 저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패러다임과 모순되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혁명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변화를 강요할 수 있다. 하지만 변화의 정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정신적 패러다임과 객관적 실체에 대한 우리의 경험 사이에는 일종의 대화가 항상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각 신념을 다른 신념들에 비추어 끊임없이 재평가하게 된다.

20세기 해석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화 모델은 아마도 1900년부터 2002년까지 살았던 한스-게오르그 가다머의 대화 모델일 것이다. 가다머는 과학, 철학, 신학, 예술, 문학의 의미를 두 지평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했다. 가다머의 사고에 있어서 지평은 특정 관점에서 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해석학의 경우 하나의 지평은 본문의 지평이다. 이 지평에는 본문에 표현된 모든 관점과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당한 결론이 포함된다. 또 다른 지평은 독자의 지평이다. 이 지평에는 독자의 모든 관점, 신념, 감정, 편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 지평들은 독자가 본문의 지평의 측면들을 자신의 지평에 통합하기 시작할 때 융합될 것이다. 독자가 본문을 통해 배우거나 본문의 관점을 받아들일 때, 독자 자신의 지평은 확장되어 본문의 지평으로부터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화 모델의 배경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것이 성경 해석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B. 영향(INFLUENCE)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미에 대한 대화적 접근을 사용한 몇 가지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할 것이다. 특히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달리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일반 책과 대화하는 것과 다르다고 강조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복음주의적 접근 방식을 권위-대화라고 부를 것이다.

평상시에 우리 대부분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들은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리가 모두 이해하는 주제에 대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서로를 동등한 관계로 인식한다. 대화가 오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건강이나 자녀 양육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때는 우리가 그 대화에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전문가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코 실수하지 않는 사람, 곧 항상 옳은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고 상상해 보라. 여러분은 분명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을 가지고 그 대화에 임하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 면에서 성경 해석이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질문과 의견을 가지고 성경에 다가가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성경은 무오하고 항상 옳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권위적인 대상인 하나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그것은 독자와 성경 사이에 일종의 대화식 “주고받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대화이다.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많은 질문, 선입견, 문화적 배경,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접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각각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준다.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믿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때로는 바로잡아 주신다.

(개리 코커릴[Gary Cockerill] 박사) 과거의 경험들과 같은 나의 배경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배경의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대하여 생각한다. 요점은 내가 성경을 접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분명히 나의 배경 등은 내가 성경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성경에 복종시키려는 완전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접한다. 나는 겸손히 성경 앞으로 나와서 내 자신의 경험을 가져온다. 물론 그렇게 해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 내 반응이 옳은가? 성경이 내가 생각하는 의미를 시인하는가 아니면 교정하는가?”라고 물으며 그것을 복종시킨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돌아와 본문을 보고, 본문을 듣고, 본문 앞에서 기다리고,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고, 그 본문을 더 큰 맥락 안에서 봄으로써, 나의 반응이 성경 본문,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일치하게 하기 위해 그것이 어디에서 재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살핀다. 물론 나의 반응이 성경에 더 많이 부합할수록 나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내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수록 더 많이 내 반응이 성경에 복종하게 하며 성경에 의해 형성되게 할 수 있다.

성경의 권위에 복종할 때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지혜와 교훈과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성령께서 그분의 재량에 따라 우리에게 성경의 참된 의미를 더욱더 조명해 주시고, 우리 삶에 더욱더 충실히 적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따라서 성경을 더 책임감 있게 읽고 해석할수록, 우리의 이해가 더 정확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은사가 더 강화되고, 사고가 더 도전받고, 문화적 배경이 더 평가되고, 개인적인 경험이 더 변화될 수 있다.

(로버트 리스터[Robert G. Lister] 박사)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려는 성향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판단자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 아래 그것에 임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접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임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화 모델의 배경과 그것이 성경 해석학에 준 영향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의미에 대한 대화적 접근법과 객관적 접근법과 주관적 접근법을 서로 비교해 볼 것이다.

C. 비교(COMPARISON)

의미에 대한 객관적 접근법과 주관적 접근법은 몇 가지 근본적인 면에서 서로 대립하지만, 매우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극단적인 면에서 두 모델 모두 궁극적으로 해석자의 권위를 성경 자체의 권위와 동등하게 하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크게 만든다. 객관주의는 우리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견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주관주의는 우리의 개인적 직관과 견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결과는 같다. 곧 우리는 성경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들이 도움이 되는 통찰을 제공할지라도, 대화 모델은 우리 자신의 약점과 성경의 신성한 권위를 더 적절하게 다루는 데 도움을 준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전반적인 대화적 접근법보다는 의미에 대한 복음주의적 권위-대화 접근법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비교는 먼저 권위-대화와 객관적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로 권위-대화와 주관적 모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럼 먼저 권위-대화와 객관적인 접근법을 비교해보자.

1. 권위-대화 그리고 객관적(Authority-Dialog and Objective)

객관적 모델과 마찬가지로 권위-대화 모델도 성경 본문에서 객관적 진리를 찾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계시이며,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객관적으로 참되고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해석 방법들은 그것들이 성경적 기준에 부합하는 한 우리가 이 계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 장 15 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다.

(딤후 2:15 개역개정)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올바른 방법을 노동자의 수고에 비유했다는 점이다. 그의 요점은 성경을 읽는 데는 주의 깊은 연구와 책임감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방법들은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책임감 있는 해석의 중요한 부분이다.

권위-대화 모델은 이러한 건전한 견해들을 해석학적 객관주의와 공유하지만, 객관주의적 극단과 관련된 몇 가지 심각한 위험도 피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우리 중 누구라도 완전히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위-대화 접근법은 우리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항상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권위-대화 접근법이 객관적 모델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권위-대화 접근법과 주관적 모델을 비교해보자.

2. 권위-대화 그리고 주관적(Authority-Dialog and Subjective)

권위-대화 모델이 어떤 면에서 객관적 모델과 유사하듯이, 그것은 주관적 모델과도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점과 신념을 가지고 성경에 임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더욱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져오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 가치 있다고 하는 성경과 주관주의에 동의한다.

시편 119 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주관적인 개념들을 강조한다. 시편 119 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기쁨과 순종의 자세로 성경에 접근하는 것, 율법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므로 율법을 사랑하는 것, 성경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우리가 대화하는 여러 가지 다른 주관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시 119:97의 말씀을 들어보라.

(시 119:97 개역개정)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이 그의 성경 연구와 이해에 영향을 주었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대한 묵상, 곧 엄격한 방법론의 일부가 아닌 주관적인 관행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했고 심지어 성령께서 그에게 조명해 주시길 기다렸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권위-대화 접근법은 주관적 모델과 이와 같은 유사점을 공유하지만, 중요한 점에서 주관적 모델과 다르다. 예를 들어, 일부 주관주의자들과 달리 권위-대화 모델은 우리의 주관성을 성경의 권위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심각하게 방해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것은 성경 자체, 곧 벵후 3:16 과 같은 구절들에서 확인된다. 거기서 베드로는 바울의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벵후 3:16 개역개정)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는 바울 서신의 일부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일부 독자들이 무지와 영적 불안정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인 실패의 결과로, 그들은 복종하지 않고 읽으며 바울의 글의 의미를 왜곡한다.

우리의 권위-대화 모델이 보여주듯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평생의 과정이다. 우리가 성숙해짐에 따라 (우리가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성경 해석의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권위-대화 모델은 성경의 객관적인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점점 더 향상시킬 것이다. 이는 다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며 그 과정은 계속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과의 우리 대화는 권위 있는 본문과 독자 사이를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나선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나선형에 우리가 참여하는 목적은 성경 본문의 의미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나선형은 더 많이 돌수록 더 촘촘해지고 결국 성경의 참된 의미에 다다르게 된다.

무엇이 이 대화를 성공하게 만드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확실히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노력은 쓸모가 없다. 성령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진심으로 복종할 때 우리의 성경 해석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바이스[P. J. Buys] 박사) 여러분은 자신의 세계관과 가설(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과 상호 작용하면 본문이 여러분을 나선형으로 인도하여 본문의 진정한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깊이 이해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곧 요점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 자체와 더 많이 상호 작용하면 할수록 본문은 여러분의 관점과 이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본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는 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V. 결론(CONCLUSION)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해석자들이 수세기에 걸쳐 취해온 의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탐구했다. 우리는 성경 자체 안에서만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는 객관적인 접근법, 독자의 관점에서 성경의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는

주관적인 접근법, 그리고 대화적 접근법, 특히 독자가 권위 있는 성경 본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에 접근한다는 권위-대화 접근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객관주의의 극단이나 주관주의의 극단으로 치달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접근법 중 어느 것도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결함이 있는 주관적인 관점이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항상 선의를 가지고 성경이 의미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성령께서 이런 종류의 권위-대화에 성경을 참여시키려는 우리의 시도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성경에 대한 더 나은 해석과 더 책임감 있는 해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